

한국언어정보학회 소 식 제 10 호 (1998년 3월)

KSLI Newsletter (Korean Society for Language and Information)

No. 10, March 1998

449-791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산 89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내
전화: 0335-30-4293/4286 전송: 0335-30-4074 e-mail: hrchae@maincc.hufs.ac.kr

㉠ 1998학년도 1학기 활동 준비 운영위원회 모임

우리 학회의 이번 학기 활동을 준비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모임이 지난 2월 24일에 있었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1997학년도 회계 보고가 있었으며 이번 1학기 정기 발표회의 일정과 발표자 선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열린 PACLIC 12 모임에 참가하신 연세대 이익환 교수님으로부터 그 모임의 진행 상황과 결정 사항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PACLIC 13 모임은 1999년 2월 10-12일에 타이완의 National Cheng Kung University에서 열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논문 제출 마감은 9월 15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학회의 현 운영위원회가 구성된지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일부가 개편되었습니다. 17명의 운영위원 중 3명이 빠지고 4명(김용환, 김종복, 노용균, 윤영은)이 새로 들어오게 되어 전체 운영위원은 아래의 18명으로 되었습니다.

강범모 (고려대), 김용범 (광운대), 김용환 (양산전문대), 김종복 (경희대), 남승호 (서울대), 노용균 (충남대), 박병수 (경희대), 윤영은 (이화여대), 이기용 (고려대), 이민행 (연세대), 이영현 (조선대), 이익환 (연세대), 이장송 (육사), 이정민 (서울대), 이현우 (인하대), 장석진 (서울대), 채희락 (한국외대), 최재웅 (고려대)

㉠ 언어학 정보 창간호 발간, 2권 1호 원고 모집

우리 모임의 학회지 언어학 정보 (ISSN: 1226-7430) 창간호 (1997년 12월호)가 출판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에게는 곧 배부될 것이며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한국문화사 (전화: 02-464-7708)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각 학교의 도서관이나 관련 학과에서 이 책을 구비해 놓을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언어학 정보 2권 1호가 1998년 6월에 발간될 예정입니다. 이 책에 실릴 원고를 모집하고 있으니 오는 4월 30일까지 편집인 이현우 교수 (인하대학교 영어교육과)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032-860-7857 (O), 032-816-6795 (H), hylee@dragon.inha.ac.kr). 원고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Linguistic Inquiry 24권 1호 (1993년 겨울호) 185-197쪽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 회원 가입 및 회비 납부 안내

본 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총무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당 회비는 일반 회원이 15,000원이며 학생 회원은 3,000원입니다. 회비는 발표회 모임에서 직접 내시든지 은행 계좌로 간사에게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이하원, 계좌번호: 132-20-202434, 제일은행 한국외국어대 지점).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of Genericity

전 영 철 (서울대학교)

본 논문의 목적은 자연언어에 나타나는 총칭적 표현의 통사론과 의미론의 상호관계를 밝히는 데 있다. 특히, 초점이 이들의 상호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Diesing (1992) 이후로, 총칭성의 관점에서, 통사론과 의미론 사이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존재한다고 가정되어 왔다. 즉, VP 밖의 요소들은 총칭적 해석을 받는 반면에, VP 안의 요소들은 존재적 해석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계층위 술어와는 달리, 개체층위 술어의 경우에는 초점의 차이가 어떠한 통사·의미적 효과를 동반하지 않는다고 분석되었다. 그래서, 아래 예에서와 같이, 초점이 술어에 있는 경우(1a)에나 초점이 주어에 있는 경우(1b)에나 모두 동일한 통사·의미적 분석이 주어졌다 (1c, d).

- (1) a. Firemen are ALTRUISTIC.
- b. FIREMEN are altruistic.
- c. [_{IP} firemen [_{I'} are [_{VP} PRO [_{V'} altruistic]]]]
- d. GEN_x [firemen(x)] [altruistic(x)]

그러나 본고에서는 개체층위 술어의 경우에도 초점의 차이가 중요한 통사·의미적 차이를 유발시킨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어 대응문장에서 (1a)와 (1b)의 주어는 각각 주격 표지 '-는'과 주격 표지 '-가'에 의해 구별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1a)의 주어를 '비초점화된 총칭적 주어', (1b)의 주어를 '초점화된 총칭적 주어'라 하여 구별한다.

본고에서는 비초점화된 총칭적 표현과 초점화된 총칭적 표현을 모두 수용하기 위하여, 내포된 삼부구조(embedded tripartite structures)의 관점에서 총칭문의 의미표상을 다룬다. 비초점화된 총칭적 표현은 보통의 제한절(restriction) 내로 분할되는 반면에, 초점화된 총칭적 표현은 핵권(nuclear scope)에 내포된 제한절로 분할됨을 보여준다. 핵권에 내포된 제한절로의 분할은 핵권 및 제한절로 동시에 분할되는 의미론적 효과를 낳는다. 즉, 초점화된 총칭적 표현은, 핵권으로의 분할을 통해 초점적 의미를 부여받고, 제한절로의 분할을 통해 총칭적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의미분석을 위해서는 van der Sandt (1992)의 presuppositions-as-anaphora 이론이 원용된다. 한편, 통사론적 관점에서, 비초점화된 총칭적 주어와 초점화된 총칭적 주어는 구별된다. 비초점화된 총칭적 주어는 초점화된 총칭적 주어보다 더 높은 통사적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의미·통사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의미·통사적 표상들 사이의 순환적 사상가설(cyclic mapping hypothesis)이 제시된다. 초점화된 총칭적 표현과 비초점화된 총칭적 표현의 타당한 구별을 위해서는 기존의 일회적 사상이 적당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통사적 서술관계(syntactic predication)가 형성될 때마다 순환적 방식으로 사상이 요구됨을 주장한다. 통사적 주어는 제한절로, 통사적 술어는 핵권으로 사상된다. 그 결과 [Spec, TopP] 위치의 비초점화된 총칭적 주어는 주 제한절(main restriction)로, [Spec, IP] 위치의 초점화된 주어는 내포된 제한절(embedded restriction)로, [Spec, VP] 위치의 존재적 주어는 핵권으로 각각 사상된다.

독일어의 초점 통사론과 초점 불변화사 이동 이론

이민행 (연세대학교)

결속 초점구문의 통사적인 특징중의 하나는 초점 불변화사(이하, 불변화사)가 문장내에서 나타나는 위치가 초점이라 불리우는 특정한 구성성분의 위치에 의해 상대적으로 정해진다는 점이다. 이처럼 초점 성분들이 불변화사들의 문장내 위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초점 성분들은 보통 문장강세를 지니기 때문에 문장의 억양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이들이 문장의 의미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크다. 결속 초점구조가 갖는 여러 특성중의 하나가 불변화사가 비교적 자유롭게 여러 통사적인 위치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불변화사와 초점 성분간의 상대적인 위치관계를 기술하는 입장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 흐름이 있다. 전통적인 입장에 따르면 불변화사는 초점 성분과 하나의 구성성분을 이루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불변화사는 초점 성분의 자매 성분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러한 입장을 인접위치론이라 명명할 수 있겠다. 다른 쪽의 입장에 따르면, 불변화사는 초점 성분에 인접해 있지 않고 비교적 자유로운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입장을 자유위치론이라 부를 수 있겠다.

이 발표에서는 Jacobs (1983, 1988)에 의해 제안되어져서 그동안 지배적인 입장으로 여겨져 왔던 자유위치

론이 이론적으로 함축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한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에 인접위치론의 입장에서, 초점 불변화사 이동 이론 “die Bewegungstheorie der Fokuspartikeln (BTFP)” 이라는 하나의 대안이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또한 초점 불변화사 이론에 의해, 영어 부정사구문에 나타나는 의미역 중의성 (scope ambiguity)과 한국어 초점 중의성 (focus ambiguity)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최재용 (1996), “[만-]의 작용역 중의성”, 언어 21.2. 673-692. 한국언어학회.
Bayer, J. (1996), *Directionality and logical form: on the scope of focussing particles and wh-in-situ*, Dordrecht.
Jacobs, J. (1983), *Fokus und Skalen. Zur Syntax und Semantik der Gradpartikeln im Deutschen*. Tübingen.
Jacobs, J. (1988), “Fokus-Hintergrund-Gliederung und Grammatik”, In: H. Altmann (Hrsg.) *Intonationsforschungen*, 89-134, Tübingen.
König, E. (1993), “Focus Particles”, In: Jacobs/Stechow/Sternefeld/Vennemann (Hrsg.) *Handbuch Syntax I*. S. 978-987. Berlin.
Taglicht, J. (1993), “Focus and background”, In: Jacobs/Stechow/Sternefeld/Vennemann (Hrsg.) *Handbuch Syntax I*. S. 998-1006, Berlin.

컴퓨터의, 컴퓨터에 의한 텍스트 장르 분석

강범모 (고려대학교)

컴퓨터는 언어 연구의 여러 부분에 쓰일 수 있다. 이 발표의 목적은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 텍스트를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통계 분석 프로그램(SAS)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여러 가지 한국어 텍스트 장르의 언어적 특성을 분석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다. 본 발표 내용의 기반은 강범모 외 (1998)의 연구로서,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연구에서는 36 가지 장르의 334 개 텍스트 샘플을 수집하였는데, 전자화된 각 텍스트 샘플은 약 1000 개의 어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코퍼스는 약 37만 어절 정도의 규모이다. Biber (1988)의 다변량, 다차원 통계분석 방법을 응용하여, 각 텍스트에 나타나는 82 가지 언어 특성의 빈도를 측정하고, 그 기본 통계를 기반으로 인자분석, 군집분석, 정준판별분석을 수행하였다. 인자분석의 결과, 한국어 텍스트의 기저에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차원이 존재함이 확인되었다: 비형식적 상호교류 대 계획된 산출, 실시간/상황성 대 내용/정보성, 사건서술 대 추상, 형식적 견해 진술, 공적 보고/보도, 공적 상황의 현대문물 언급. 군집분석의 결과 여덟 개의 텍스트 유형--이 유형들은 관습적인 장르와 독립적으로 순수하게 언어적 특성들의 공기관계에 의해 정의되는 텍스트 종류들이다--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장르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정판별분석은 명확히 해석이 가능한 결과를 주지는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자분석 및 군집분석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즉, 실제 대화 (진사) 텍스트가, 작가가 인위적으로 이상화하여 만든 대화모형 텍스트--소설 속의 대화, 드라마, 영화 대본, 연극대본, 만화 등--와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다. 본 발표에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통계적 텍스트 분석을 하는 방법론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참고 문헌>

강범모, 김홍규, 허명희 (1998) “통계적 방법에 의한 한국어 텍스트 유형 및 문체 분석”, 준비중.
Biber, D. (1988) *Variation across Speech and Writi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98학년도 1학기 연구 발표회 계획 (한국언어정보학회): 제 36호

일시: 3/21, 4/18, 5/16, 6/13 (토) 9:30 a.m.

장소: 대우재단 빌딩 (서울역 앞 대우 빌딩 뒤) 세미나실

발표 시간: 기획 논문/강의--60분, 일반 논문--40분

3월 21일 (토), 9:30 a.m.

기획: 전영철 (서울대) “The Syntax-Semantics Interface of Genericity”

일반: 이민행 (연세대) “독일어의 초점 통사론과 초점 불변화사 이동 이론”

일반: 강범모 (고려대) “컴퓨터의, 컴퓨터에 의한 텍스트 장르 분석”

4월 18일 (토), 9:30 a.m.

기획: 이동영 (서울대) “Resolving Honorific Pronouns in Dialogue on the Basis of Social Status Information”

일반: 최승권/이민행 (SERI/연세대) “독-한 명사구 기계번역 연구”

일반: 윤영은 (이화여대) “Double Quantifier Binding in Double-*if* Clauses”

일반: 노용균 (충남대) “Conjunction as Adjunction”

5월 16일 (토), 9:30 a.m.

기획: 채희락 (한국외대) “Complementation vs. Modification (in Korean)”

일반: 김종복 (경희대) “Are There Gapless Relative Clause Constructions?”

일반: 윤재학 (경희대) “Korean Exceptives and Their Implications”

일반: 김용범 (광운대) “특수조사 -도 의 의미와 강조”

6월 13일 (토), 9:30 a.m.

일반: 남승호 (서울대) “한국어 명사구의 구조와 의미”

일반: 김용환 (양산전문대) “명사구와 시간 부사구의 상호 작용”

일반: 이현우 (인하대) TBA

일반: 이정민 (서울대) TBA

대우재단 빌딩의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차권 발급이 한정되어 있사오니 (5매), 가급적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주십시오.

발표 및 휴식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발표자와 참석자들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표자가 OHP 사용을 원할 경우 총무에게 미리 알려 주십시오.